

지역 현안 SOC사업 가속도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여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

문 대통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예타 개선" 강조 지방분권 의지도 재확인...남북교류사업 준비 당부

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현안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

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처음 초청해 마련됐다. 원창목(원주시장)·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중 207명이 참석했다. 서울=이규호기자 hokyu1@

기업 건설경기 전망 4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연초 공사발주 위축 계절적 요인 탓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월 CBSI는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4개월 만에 하락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말하며, 100을 웃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CBSI가 하락한 이유는 연초 발주와 기성이 급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가장 크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뜻한다. 통상 1월은 전년 12월에 비해 공사 발주 및 기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6개 시·군에 5조8620억 투자, 기존 사업 곳곳서 반복

종합발전계획 134개 사업 준비 경원선 복원 등 기추진 상당수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에 오는 2030년
까지 5조8620억원이 투자되지만 접경
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일
부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됐거나 이미 계
획됐던 사업들이 적지 않게 반영, 사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따라 도내 134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투자액 규모는
철원군이 1조9942억원 (24개 사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성군 1조4423억원
(27개) △춘천시 1조910억원 (8개) △인
제군 5972억원 (27개) △양구군 4479억
원 (29개) △화천군 2844억원 (19개) 등
이다.
그러나 각 지역 일부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이거나 계획됐던 사업들
이 포함, 지역사회는 한반도 평화 변영

시대 접경지역의 신(新)로드맵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춘천시 8개 사업 가운데 기
존 추진 사업은 캠페이지 평화공원 조
성 (3152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
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다. 철원군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원선 복원사업 (1791억원)이 포함됐
고, 2017년부터 추진된 공예 태봉국 테
마파크사업 (155억원), 2016년부터 진

행하고 있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사
업 (168억원)이 있다.
화천군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사업 (314억
원)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
(480억원)은 2010년부터 추진에 시동
을 건 현안이다.
양구군도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
업 (432억원)을 2012년부터 추진했으
며,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
(75억원)은 2017년 시작됐다. 인제군 동

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 (555억원)과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 (128억
원)은 각각 2017년과 2016년에 본격화
된 사업이다.
고성군은 화진포 평화빌리지 조성사
업 (150억원)이 사업기한을 조정, 올해
부터 2020년까지로 잡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2012년~2015
년을 목표로 잡았던 사업이었다. 북한하
구 공원화사업 (44억원)은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역종합박지는